

한국 불교문화의 이해

한 보 광*

목 차

1. 서 론
2. 한국불교문화란 무엇인가
3. 한국불교의 특성
4. 한국불교문화의 잠재성
5. 한국불교문화의 분류
6. 결 론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불교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한국불교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 고대사의 시원과 불교의 전래 및 문화이론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한국불교문화란 바로 한국불교의 삶의 흔적이며, 생활·신앙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술적으로 승화된 것이 종교문화이며, 신앙문화이다. 그러나 단순한 종교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함께하여 왔으므로 한국불교문화가 바로 한국문화를 대

*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전자불전연구소 소장

변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한국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일상생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의 특성은 종합적인 통불교, 원융회통불교인 동시에 전통적인 대승불교교단의 공동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세계유일의 불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문제라서 아직도 학문적인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먼저 유형별로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문화는 대부분 정보문화재로 지정 내지 비지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분류로는 선문화, 정토문화, 밀교문화, 사경문화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예술적 분류와 일상생활적 분류법을 사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1. 서 론

한국불교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막상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는 난해한 문제가 많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우리는 한국이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불교와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불교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여 보며, 세계불교 속에서 한국불교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불교문화의 잠재성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불교문화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분류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여기서는 원론적인 문제점만을 제기하고 한다.

2. 한국불교문화란 무엇인가

‘한국불교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막연할지 모르며, 한

편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묻는가?’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의는 쉬운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불교와 문화가 합쳐져 있는 복합명사이다.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국가로서의 의미이고, 불교란 종교의 영역이며, 문화란 학문적인 분류이다.

먼저 한국은 오늘날 세계 229개 정도의 국가 중 한 독립된 나라이다. 공간적으로는 동양의 동아시아에 존재하며, 시간적으로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과거에 넓은 영토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수많은 고난과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단일민족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인류의 출현을 약 10,000여년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선의 멸망이후의 대한제국으로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조선부터 지금까지의 단군의 역사를 말한다. 단군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는 일연의 『삼국유사』의 「古朝鮮」 편에 의하면,

『魏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檀君王儉이 도읍을 阿斯達(지금의 평양인근)에 정하고 나라를 개국하여 朝鮮이라고 일컬으니, 高[堯의 代字로서 고려 定宗의 諱(堯)자를 피하여 기록한 것]와 동시라고 하였다.¹⁾

여기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대조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역산하였을 때 금년은 檀紀로 4338년에 해당된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의 고대사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史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최고의 史籍인 司馬遷의 『史記』 「朝鮮列傳」에는 朝鮮에 관한 기사가 있다.

朝鮮은 溫水 洌水 汕水의 三水가 합하는 洌水에 있다. 樂浪으로도 의심된다. 朝鮮이라고 하는 지명을 취한 것은 여기에 있다.²⁾

1) 一然 著 『三國遺事』 「紀異」 第一, 「古朝鮮」(大正藏 49, p.961下)

2) 漢 司馬遷 撰,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中華書局刊, 史記 卷9 p.2985)

라고 한다. 따라서 朝鮮이라고 하는 지명은 고대부터 사용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후 한반도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에는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개국에서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문화적인 면을 기록한 자료로는 중국에서 전하고 있다. 즉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班固의 『漢書』 「地理志」라고 할 수 있다.

箕子が 朝鮮에 가서 그 백성을 가르치되 예의와 田蠶과 織作으로써 하였으며 樂浪朝鮮民의 犯禁에 八條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는[相殺] 마땅히 죽임으로 갚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相傷] 곡식으로 갚으며, 도둑질 한 사람은 남자는 자격을 박탈하여 노예로 삼고, 여자도 노비로 삼으니 스스로 죄를 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 당 五十萬을 내어야 한다. 비록 면하여 평민이 될지라도 세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부끄러워하여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없었다. 이로써 그 백성은 마침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고 대문을 닫음이 없으며, 부인은 貞信하여 음란하지 않고, 그 농민들은 籩豆로서 음식을 먹었으며, 도회지에서는 자못 吏와 內郡賈人을 본따서 往往히 杯器에 먹었다. 郡初에 吏를 遼東에 취하였더니 吏가 民에 閉藏함이 없음을 보고 및 賈人의 往者가 밤이면 도둑질을 하니 세상이 점점 더욱 야박해져서 이제의 犯禁에서 60餘條에 이르렀으니 가히 귀히 여길 것이로다. 인자와 현인이 교화하였다. 그러나 東夷는 천성이 유순하기 三方(南西北)과는 다르다. 그로 孔子는 道가 행해지지 않음을 슬퍼하여 浮를 바다에 두어 九夷(朝鮮)에 머물고자 하였으니 이와 같다.³⁾

라고 한다. 여기서 중국의 은나라 말기에 箕子が 조선에 왔다고 하여 箕子朝鮮이라고도 하며, 이는 韓氏와 같은 혈족이라고 하여 韓氏朝鮮이라고도

3) 班固 撰, 『漢書』 第28卷, 「地理志」第8下(中華書局刊 漢書 卷6, p.1658)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韓氏와 箕氏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 이 때 중국에서 문명이 전하여졌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樂浪朝鮮 이하의 기사는 우리 민족 고대의 정치, 도덕, 사회생활, 인정풍속 등을 엿볼 수 있는 실로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八條禁法’이라는 것이 완전히 전하지 못하고 ‘相殺, 相傷, 相盜’의 三條뿐이요 또 60여조가 있었다고 하나, 이것이 전하지 않는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삼조만이라도 전하여 고대인들의 不成文法 및 도덕적 생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 당시의 생활상황의 일단으로서 시골 사람들이 籩豆, 즉 竹, 木器로써 음식을 먹고 도시 사람들은 漢官吏와 상인들의 생활법을 모방하여 栝器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漢의 물질적 문명의 좋은 영향을 입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요, 또 이와 반대로 漢官吏와 상인들의 盜行으로 인하여 인심이 야박해졌다는 것은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서 당시의 漢文化는 功과 罪가 相半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우리 上代の 제 부족국가들이 다 각각 그 독특한 생활을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그 각 국민들의 신앙에 관한 사실을 본다면,

1) 夫餘는 殷, 正月로서 祭天하되 國中이 大會하여 連日飲食하고 歌舞하니 名하여 迎鼓라 했고,

2) 고구려는 十月에 祭天하되 國中이 大會하니 名하여 東盟이라 했다 하고,

3) 濊는 十月節에 제천하는 바 주야로 음주·가무하나니 이를 명하여 舞天이라 했다 하며,

4) 韓은 五月에 下種해 마치고 귀신을 祭하되 群衆하여 가무·음주하기를 주야로 쉬이 없었다. 그 舞는 수십인이 함께 일어서 서로 따라가며 踏地를 低仰하고 수족이 상응하여 節奏함이 鐸舞와 같음에 있고, 十月에 農功을 마치고서는 또 다시 이와 같이 한다. 귀신을 信하는데는 國邑에 각각 一人을 세워서 天神을 主祭하니 이를 명하여 天君이라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상대민족들이

원시적인 단순한 생각으로 오직 농사나 지어서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써 인간의 能率로 알았다면 결코 이와 같은 제천의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자신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그들의 자력이상의 하늘의 위대한 힘을 빌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시적인 종교행사지만 이로 인하여 그들의 종교심 내지 철학적 욕구심의 싹을 찾아볼 충분한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레이몬드 윌리엄즈는 자신의 책 『Keywords』⁴⁾에서 문화의 정의에 대해 크게 3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정신을 지적, 정신적 또는 심미적으로 개발해나가는 일반적 과정 그 자체’를 문화로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유럽의 문화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유럽의 위대한 철학자, 화가 그리고 시인 또는 소설가들을 열거하는 경우이다.⁵⁾ 두 번째의 관점은 문화를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서유럽의 문화를 다시 예를 들어 얘기할 때, 서유럽 문화가 표출하는 지적, 정신적, 그리고 심미적 요소뿐 아니라 교육정도, 여가, 운동 그리고 종교적 축제 등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의 관점은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문화를 정의하는 것이다. 존 스토리는 이 관점이 ‘의미’하거나 의미를 생산하거나 또는 의미생산의 근거가 되는 텍스트나 문화적 실천행위를 다룰 때도 사용된다고 덧붙이고 있다.⁶⁾

인간의 지적 수준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교화되고 진화해 가는 과정을 문화로 보고 있는 첫 번째 관점은 다른 관점들에 비해 가장 포괄적으로 문화라는 현상을 진단하는 반면, 우리의 관심과도 가장 거리가 멀다. 존 스토리에 따르면 두 번째의 관점이 윌리엄즈가 가장 선호했던 관점이며 이때의 문화는 ‘삶의 전반적인 양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⁷⁾(존 스토리, 81-82

4) Williams, 『Keywords』(1983, p.87. 존 스토리, 1992), pp.13-14 재인용

5) ‘culture’의 어원인 cultivate(경작하다, 교화시키다)와 가장 근접한 정의이기도 하다. 이때의 문화의 개념은 문명(civilization)의 개념을 함축한다.

6) 존 스토리, 1992. p.13, p.81.

쪽). 윌리엄즈가 정리한 세 번째 관점은 사실상 가장 모호하다. 왜냐하면 ‘지적인 작품 생산이나 예술적인 활동이 문화’라는 생각은 존 스토리가 덧붙이고 있는 ‘의미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문화라는 생각’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윌리엄즈의 문화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편의상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즉 소위 고급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을 문화로 보는 관점과 의미를 나타내고 전달하는 일체의 모든 의미생산활동을 문화로 보는 관점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위계층의 모든 의미생산활동도 문화로 치부된다). 앞으로의 문화에 대한 논의들은 이들 4가지 관점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 또는 (복수의) 관점에 그 토대를 두게 될 것이다.⁸⁾

이를 다시 정리한다면, 문화의 원천은 두 번째의 ‘인간 생활의 전반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의 인간정신의 지적인 개발과정이 포함되며, 더 발전해 나간다면 세 번째의 예술적인 행위를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文明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필자는 문화란 ‘인간의 삶’ 즉 ‘인간의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인 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어원적으로 본다면 분트(Wundt)는 문화 즉 독일어의 Kultur의 어원을 라틴어의 Kultra에 찾는다. 또 이 말의 前語로서 Kultus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본의는 ‘양육한다’, ‘돌봐준다’ 등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cultus derum과 cultus agri와의 양면의 의미가 있으며. 전자는 ‘신에 대한 양육’, 후자는 ‘토지에 대한 양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전자는 종교적 의미요, 후자는 농업적 의미라는 것이다. 종교적이라 함은 종교적

7) 이 관점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의 세부관점(서로 차이가 없지 않은)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는 ‘한 시대에 있어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총체적 생활방식 전반’을 문화로 보는 관점과 ‘어떤 특정집단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위하고 표출하는 생활방식’을 문화로 보는 관점이다. 많은 인류학자들의 특정사회연구는 문화에 대한 후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도시·공간·문화론(문화경관론) Urban Cultures and Spaces / 진양교
2001년 도시과학대학원 가을학기 강의안 참조.

예배, 즉 종교적 예식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농업적이라 함은 토지의 경작 파종 수확 등 농작의 일체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라는 것은 정신을 주도하는 종교와 경제를 주로 하는 농사 면과의 양자를 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원적으로 살펴본다면 문화란 종교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계문화의 구심점은 종교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서구문화는 어디까지나 기독교가 바탕이 되었으며, 중동지역은 이슬람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편 동양에서는 유교나 불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즉 종교적인 사고와 바탕 위에 각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문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이란 지대하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문자로 기록된 역사는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한국불교문화란 한국에 있어서 불교적으로 사고하고, 신앙하며, 생활하면서 형성된 유형무형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는 한국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하여 왔으므로 광의적으로는 한국민족문화의 대부분이 한국불교문화라고 할 수 있으나, 협의적으로는 한국불교가 바로 ‘한국불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불교인의 유형무형의 삶과 예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불교문화란 한국 불교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불교의 특성

그러면 한국불교란 무엇인가? 즉 ‘한국불교의 특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규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한국불교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흥기하여 중국, 한국, 일본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승불교의 교단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

는 나라는 한국불교뿐이기 때문이다. 중국불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완전히 대승교단이 소멸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되고 있는 중이므로 전통적인 교단의 계승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본의 대승교단은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변형되어 帶妻在家敎團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전통적인 교단의 형태나 신행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한국불교 교단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바로 대승불교 교단의 형태를 밝히는 것이 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흔히들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아류 혹은 지류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오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문화권이 대승불교문화권이면서 그 표현이 한자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문은 중국의 문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중국인들만의 글자는 아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화교들이 상권을 형성한 곳이면 어디서나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한자문화권에 있으면서 글자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발음은 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다. 때로는 의미까지도 다르게 표현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문은 共同文語인 동시에 民族語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자기 방식대로 읽기 때문이다.⁹⁾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독특하게 사용하는 한자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문화권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나라의 말과 글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吏讀文字와 鄉札, 口訣 등의 借字表記法도 널리 통용되었다. 또 1443년에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제는 한문경전을 완전히 한글로 번역하고자하는 역경운동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한문경전을 집대성한 고려대장경을 1차로 번역 완간하였으며, 다시 그 동안의 오류와 보완을 위해 재번역과 전산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아류의 명예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교경전이 우리글로 완전히 완간 되었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9) 조동일 『공동어문학과 민족어문학』(서울: 지식산업사, 1999), p.52.

물론 그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이므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대승불교권에서는 대승불교권 나름대로 서로 공통되는 보편적인 면이 있는가하면, 또 각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다. 불교에서 공통적인 면은 나라와 인종과 시대를 초월하여 면면히 흘러오는 점이 있다. 그런가하면,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곳에 적응하려는 특수성이 있다. 여기서 한국 불교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한국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그러면 과연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본질적인 깨달음 이외에도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 불교를 전파하여 왔다. 그러나 불교의 본질적인 문제만을 말한다면, 2500년 전의 인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요즈음 일부의 학자들 가운데는 초기불교만이 불교이며, 그 이외의 불교는 비불교라고 규정하는 경우조차도 있다.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의 독특한 불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불교란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이다.

『法句經』에서는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¹⁰⁾라고 하였다.

宇井伯壽박사는 “불타가 설하고, 불타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초기불교에서는 석존이외의 어느 누구도 부처가 된 일이 없다. 초기불교나 소승불교에서는 一佛一菩薩만이 존재하였으며, 그 외는 모두 阿羅漢들이다. 대승불교에서 비로소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多佛多菩薩思想이 나왔다. 최근에 前田惠學박사는 불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불교란 석존을 開祖로 하여 涅槃 혹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最高究極의 가치 또는 목적으로 하고, 그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문화의 종합적 體系를 말한다.¹¹⁾

10) 『法句經』 권하(대정장 4, p.567中)

즉 불교란 살아있는 종교이며, 불교학이란 살아있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문헌학이나 철학적인 논리만이 불교가 아니라 현재 각 지역에서 부처님을 교조로 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종합적인 문화적 현상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교조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실천방법은 각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善巧方便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불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여러 가지 수행이나 신앙형태 및 불교문화 전체를 통칭하여 불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란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한국민족에 의해 신앙되어지는 불교를 말한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불교전래 이후 지금까지 전승되어오는 불교를 말한다.

160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신앙되고 연구되어 오면서 한민족과 함께 해 온 불교는 다른 나라의 불교와 공통점이 있는가하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한국의 지형이나 기후풍토와 역사적인 배경 및 한국민족의 근성에 적합한 불교로 적응시키게 되었다. 여기에는 독특한 한국사상이나 사유방법을 낳았으며, 실행방법이나 의례를 정착시켰고, 한국불교문화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특수성을 형성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깨달음을 추구하고 열반을 향하는 보편성은 세계의 어느 나라 불교든지 모두 동일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특수성과 불교라는 보편성이 합성된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세계 어디든지 공통적인 면이 있으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존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불교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불교 속에는 이미 한국 불교문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前田惠學 東國大大會 特別講演 「初めて學術大會をSeoulで開催して-佛教學いかにあるべきか-」 『印度學佛教學研究』 51卷1號(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平成14年), p.236.

4. 한국불교문화의 잠재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불교 또한 1700여년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무한한 잠재적인 보고가 숨겨져 있다. 한국불교의 역사만 간략히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래 된 것은 AD67년경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교가 고구려에 들어온 것은 2세기경에 민간 차원에서 유입되었다. 그러다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전진왕 부견이 불상과 불경 및 승려를 보내어 전해졌다. 이것이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처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들어온 불교는 중국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대승불교이며, 한문권의 불교였다. 그리고 이보다 12년 뒤에 백제에 불교가 들어왔다. 백제는 침류왕 1년(384년)에 중국의 동진(東晉)으로부터 인도의 승려인 마라난타존자가 직접 들어왔다. 그러므로 인도불교 중에 계율 중심의 불교가 전래된 것이다. 그러나 마라난타의 불교가 상좌부 계통인지 아니면 대승불교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인도불교가 직접 한국에 전래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신라에는 고구려로부터 전래되는데 신라의 토속신앙의 반대로 인해서 늦게 도입되었다. 신라 법흥왕 14년(527년)에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인 받게 되었다.

이 뒤로 삼국은 모두 불교를 신봉하여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으며,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고승들을 배출하였다. 그 뒤 660년경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불교도 신라 중심의 불교로 발전하였다. 통일신라불교는 대단히 찬란하였다. 특히 대승불교의 교리인 화엄, 천태, 정토, 유식, 삼론, 반야, 밀교 교학의 발전과 더불어 실천신앙도 널리 행하여졌다. 수많은 경전들이 번역되고 주석서가 저술되었다. 대표적인 승려로는 원광, 자장, 원측, 원효, 의상, 경홍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한 종파나 한 가지 교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圓融回通佛敎, 혹은 通佛敎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라에 국란이 있었을 때마다 국란을 물리치기 위해 불교도 힘을 합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불

교를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護國佛教라고 하였다.

통일신라불교는 대중불교로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교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모든 국민들은 불교를 신앙함으로서 나라는 편안하고 전쟁은 없어졌다. 한편 불교문화는 찬란하게 꽃피게 되었다. 8세기경에는 한국문화의 대표적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창건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 뒤 9세기경에는 중국으로부터 禪佛教가 전래되므로 교학적인 불교보다 수행적인 불교로 변화하였다. 중국에서 선불교를 도입한 사람으로는 道義禪師가 대표적이며, 오늘날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曹溪宗의 개산조로 숭앙되고 있다. 대중 속에 있던 사찰은 수행하기 편한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국민과는 거리를 두고 수행에 전념하여 많은 고승들을 배출하였다. 이들의 종파는 五教九山으로 나누어졌다. 신라말기인 10세기경에는 선불교가 중심이 되어 고려가 건국되었다.

고려의 왕건은 나라를 건국하면서 불교를 국교로 삼아 보호하였다. 많은 사찰의 건립과 승려들을 보호하였다. 특히 그는 訓要十條라는 유훈을 남겨 고려국에서는 영원히 불교를 보호할 것을 후세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500여년 동안은 불교는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

고려불교는 대부분 선불교가 중심이었으나 천태종과 화엄종 등 11종파가 생겼으며, 민간에서는 정토신앙과 밀교신앙이 성행하였다. 한편 나라가 몽고의 징기스칸에게 전란을 당하였을 때는 나라의 전란을 부처님의 힘으로 퇴치하기 위해 한문경전인 팔만대장경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 목판본의 漢譯大藏經은 오늘날도 해인사에 보존되어있다. 이 대장경은 한자로 된 목판본으로는 가장 정확하므로 일본에서 만든 新修大藏經의 모본이 되었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고려불교는 국가로부터 지나친 보호 하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적도 많았다. 이를 혁신한 사람이 보조국사였으며, 그는 지금도 조계종의 중흥조로 숭앙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천대각, 균여, 요세, 일연, 나옹, 태고보우 등 많은 고승들을 배출하였다. 고려시대 국란에도 승려들이 나라를 위해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세기경에는 조선시대가 열리므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였다. 조선왕조는 국가이념을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앙하는 것으로 삼았다. 따라서 불교는 탄압받기 시작하였고, 승려들은 산 속으로 숨어 지내게 되었다. 11종과도 통합하여 禪敎兩宗으로 만들었으며, 승려들의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도 폐쇄하였다. 심지어는 승려들을 환속케 하였으며, 사찰들을 파괴하고, 군인으로 동원하기도 하였다. 한국불교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허응당 보우가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儒生들의 반대로 그도 순교 당하고 말았다. 이 때 등용시킨 인물이 서산대사이며, 그는 그의 제자 사명대사 등과 함께 일본의 침략을 막아 크게 공훈을 세우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글이 만들어져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행되었다. 한편 일제의 강점기에는 민족독립운동을 위해서 앞장 선 사람들도 한용운, 백용성을 비롯한 스님들이었다.

한국에서 불교의 역사가 1700여년 정도가 되다가보니 우리들의 삶 속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불교적인 생활방식이 은연중에 자리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역사 속에서의 불교적인 역사, 유형의 불교문화재와 무형의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부분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한국불교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국불교의 역사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형태가 바탕이 되어 이룩한 정신적인 발전과 예술적인 행위의 결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한국불교의 잠재력은 막대하다. 아직도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는 불교 밖에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불교는 의식주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있고, 전통적인 한옥의 기와집에서 살고 있으며,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 있다. 이것만하여도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한국불교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한국불교문화의 분류

한국불교문화를 크게 구분한다면, 유형별 분류, 신앙적 분류, 예술적 분류, 일상생활적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법은 필자의 생각이므로 학문적인 분류법에 적합한지는 앞으로 검증 받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유형별로 분류하면, 여기에는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구분된다. 먼저 알기 쉽게 유형문화부터 살펴본다면, 오늘날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화재를 꼽을 수 있다. 이를 불교에서는 정보문화재라고 하는데, 사원건축, 불상, 탑, 부도, 비석, 탕화, 석등, 공예, 조각, 조경 등 참으로 다양하며, 양적인 면에서도 불교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불교문화재 현황에 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2004년 『법보신문』에서 밝힌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는 2,081점이며, 시·도 지정문화재는 8,927점 등 총망라했을 경우에 11,728 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 중 불교문화재가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 지정문화재의 45%이고, 비지정문화재의 7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¹²⁾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 70%정도가 불교문화재이다. 그 중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는 불교문화재는 95% 이상이다. 200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종단별로 살펴 볼 때 조계종에서는 국보의 100%, 보물 97%, 지방유형문화재 93%, 문화재 자료 93%를 소유하고 있다.¹³⁾

그러나 정보문화재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불교의 각 사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봉안되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화재가 많다. 그러므로 단순히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유물관을 찾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법당을 참배하면 대할 수 있으며, 향을 올리고, 촛

12) 「성보관리 체계 총체적 부실」, 『법보신문』 제772호(2004. 9.22) 1면~3면.

『불교문화재지정 현황목록』(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2)

13) 『聖寶』 제4호(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정보보존위원회, 2002) p.10.

불을 켜며, 공양을 올리는 불상이나 탕화나 스님들의 주거나 수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항상 파손되고, 유실되며, 소실될 가능성이 많은 문화재이다. 이러한 성보문화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도난의 위험성도 많다. 조계종 문화부에서 펴낸 『불교문화재도난백서』에 의하면 1984년부터 1999년까지 15년 동안에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316건 453점으로 매년 평균 20여 점이 도난당한 셈이라고 한다.¹⁴⁾ 그러나 실제로 도난 문화재의 수는 이 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는 형태는 없으나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든다면 범패, 영산재, 회심곡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불교설화, 구전문학 등도 있다.

둘째 신앙적 분류로는 자력신앙을 바탕으로 한, 禪文化가 있으며, 타력신앙을 중심으로 한 정토문화, 밀교문화와 사경을 중심으로 한 인쇄문화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인쇄문화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구정광다라니의 목판인쇄문화와, 고려대장경의 목판본은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이다. 뿐만 아니라 금속활자로는 세계최초로 꼽히고 있는 直指는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예술적 분류는 시, 소설, 수필, 서예, 회화, 영상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상생활적 분류로는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상으로는, 가사, 복식 등을 말 할 수 있다. 식생활문화로는 사찰음식, 사찰요리, 다도 등은 한국 전통음식문화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주거문화는 전통적인 기와집과 온돌을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다. 지금도 사찰에서는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계승하면서 실내는 생활에 편리하게 구조를 변경

14) 이분이, 「불교문화재 도난현황과 추이 분석」 『불교문화재도난백서』(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1999) pp.278-288.

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법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방법이라서 앞으로 정리해야할 과제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만족할만한 이론을 정립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자 한다.

6. 결 론

이상으로 한국불교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불교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조금은 장황하였지만, 한국 고대사의 시원과 불교의 전래 및 문화이론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한국불교문화란 바로 한국불교의 삶의 흔적이며, 생활, 신앙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술적으로 승화 된 종교문화이며, 신앙문화이다. 그러나 단순한 종교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함께하여 왔으므로 한국불교문화가 바로 한국문화를 대변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한국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일상생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단순히 생명이 다하여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가 아니라 사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예경되어 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특성은 종파적인 분파불교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통불교, 원융회통불교인 동시에 전통적인 대승불교교단의 공동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세계유일의 불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대승교단이 많이 변화하였지만,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교단인 조계종은 전통대승교단의 공동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불교문화의 잠재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문제라서 아직도 학문적인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먼저 유형별로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문화는 대부분 성보문화재로 지정 내지

비지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분류로는 선문화, 정토문화, 밀교문화, 사경문화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예술적 분류와 일상생활적 분류법을 사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키워드(Keyword)

불교문화, 한국불교문화, 성보문화재, 한국불교의 특성, 한국불교문화의 분류

Buddhist Culture, Korean Buddhist Culture, Sungbo Cultural Treasure, Categorization